

# 나는 자전거로 출퇴근 한다!

글 배제민(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지..”

출근 할 때마다 와이프에게 듣는 한소리다. 나에게 묻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바로 자전거를 통해 출퇴근을 하기 때문이다.

2015년 여름, 내가 살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에 창릉천 자전거 길이 개설됐다는 인터넷 뉴스를 접했다. 그때는 자전거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좋겠다는 생각만 했다. 매일 매일 불비는 사람들 속 출퇴근길에 며칠 전 창릉천 자전거길 기사가 생각났다.

“어차피 한강 여의도 자전거길도 있으니 창릉천을 통해 한강을 나가볼 수 있지 않을까. 자전거로 출근하면 만원버스 떠나 보낼 일도 없을 텐데..”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창릉천 자전거길 개통에 대한 뉴스를 더 찾아봤다. 아, 역시! 내 생각이 맞았다. 갈 수 있을 거란 추측이 맞아떨어졌고 바로 자출(자전거 출근)을 시작한 지가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창릉천 자전거길을 통해 출퇴근 시간이 기다려지고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워졌다. 아침에 출근하면 새벽 일찍부터 조깅하는 어르신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하천 길가의 향긋한 풀내음과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매번 같은 자리에 모여 있

는 오리 떼 가족들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가끔은 꽂꽥거리며 싸우는 건지 장난하는 건지 동물 울음소리가 출근길에 즐거움을 더해 주기도 한다.

창릉천은 삼송역 근처에 있는 ‘삼송테크노밸리’ 뒤편으로부터 시작하여 한강의 물줄기를 만나는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까지 약 10km 내외의 길이로 이어진다. 자전거 도로 이용자의 주행성과 시인성을 고려해 콘크리트 포장에 적색 칼라도 막이 시행됐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곳곳의 이정표가 세워져 있어 길 안내에 친절함까지 느껴진다. 때때로 업무가 늦어 밤늦게 퇴근할 때면 자전거 도로 가장자리 일부에는 태양광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어 세심함까지 느낄 수 있다.

또한 크게 가파른 오르막이나 내리막 없이 대부분 평지로만 이루어져 있어 처음 접했을 때부터 부담이 적었다. 창릉천 자전거길에 더욱 정감이 가면서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도 자주 애용하는 자전거길이 됐다.

지금은 집과 사무실을 오가는 없어선 안 될 중요한 통로가 된지 오래다. 봄부터 시작해 겨울까지 각 사계절에 대한 뚜렷한 매력이 제각각 있다. 가보지 않았다면 그 매력을 직접 가서 느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다.

